

금요 양성 2025년 5월 16일 2025 프란치스칸 영성

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.

프란치스칸 삶과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? 프란시스 성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살펴 보라. 거기에서 좋은 로드 맵 (경로 지침)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아래에 열거된 말과 생각들로 우리의 세라핌적 사부님은 모범을 보여주셨다. 초기 양성이나 영속 양성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말들인지 알아보겠는가? (*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열거된 것은 아니다*)

- **육화-구유**- 우리는 하느님의 겸손, 자신을 비우심에 대해 생각한다. 프란시스는 육화를 경외했었다. 최초의 구유 장면을 그레치오에 만드신 프란시스의 이야기에 대해 묵상해 보라.
- **십자가**- 구체화된 하느님 사랑의 표지이다. 우리가 십자가를 **응시** 할 때 무엇을 보고 체험하는가? 프란시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체험했던 것에 대해 묵상해 보라.
- **성체**- 성작/성배 - “오, 극치의 겸손이여! 오, 겸손의 극치여!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토록 겸손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찮은 빵의 형상안에 당신을 숨기시다니! (성 프란시스 - 형제회에 보낸 편지)
- **삼위일체**- 프란치스칸 삶은 삼위일체에 초점을 둔다. 프란시스는 하느님은 아주 자비로우셔서 그의 사랑이 삼위일체의 삼위안에 흐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보았다.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의 삶에 참여한다.
- **관상**- 우리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**경청한다**. 예수님을 닮으려고 갈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**변화되어**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.
- **회개/참회**-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다.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매일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. “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으니 이제 시작합시다...” (복되신 프란시스의 생애에서 인용된 성 프란시스: 성보나벤투라 FA:ED 2권 640쪽)
- **창조물/피조물**- 하느님은 절대적인 **사랑, 존재와 창의성**이다. 프란시스는 모든 창조물안에 아버지의 흔적이 들어있음을 보았다. 창조물은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이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의존해 있다고 보았다.
- **관계**- 프란시스는 성령의 사랑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았다. 우리는 하느님과, 형제 자매들과 또 다른 모든 피조물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. 즉 **우주적인 친족 관계**를 이루고 있다.

- **형제애**는 하느님, 형제 자매들,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.
“주님은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...” (성 프란시스)
- **카리스마 (은사)** - 성 프란시스처럼 우리도 **겸손과 단순함**으로 복음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가 현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,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. “재속 프란치스칸회 회원의 회칙과 삶은 이것이다.....” (회칙 4조)
- **성서** -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, 우리는 성서 봉독, 묵상과 성서 공부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할 필요가 있다 “...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.” (회칙 4조)
- **변화** -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한다. 신적인 불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.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협력한다.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된다.
- **기도** - 기도없이 이 모든 것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.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, 혼자서도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도 기도 하고 침묵가운데 말없이 기도한다. (우리의 기도는 전례적이고,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다)

형제회와 나누시오 - 아마 몇 달에 걸쳐서 - 프란치스칸 영성의 각 영역이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. 당신은 형제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 개인적으로나 형제회안에서 위의 것들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가?